

지역작가 중앙 진출 이젠 '연중무휴'

광주시립미술관, 서울 인사동에 '갤러리 LIGHT' 문 열어

각계 인사 100여명 참석 개관식 개관 기념전 우재길 등 14명 참가

서울 무대 진출을 꿈꾸는 지역 미술인들의 교두보가 마련됐다.

광주시립미술관이 지역 작가들의 중앙 화단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에 마련한 '광주시립미술관 갤러리 LIGHT'(이하 갤러리 LIGHT)가 6일 오후 5시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갤러리 밀집 지역인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미림화방 건물 2~3층에 등지를 둔 '갤러리 LIGHT'는 230㎡(약 70평) 규모로 광주시립미술관이 직영한다.

이날 열린 개관식에는 박광태 광주시장, 박지택 광주시립미술관장, 이성림 한국예총회장, 노재승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등 각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미술관측이 개관 기념전(6~26일까지)으로 준비한 '해밀턴' 오픈식도 함께 열렸다.

광주의 대표 이미지인 '빛'을 주제로 꾸민 이번 전시에는 김광옥·박일구·손봉채·안유자·오창록·우재길·윤의·이선복·이이남·이정록·전범수·조근호·진시영·한희원씨 등 모두 14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지방 공립 미술관이 서울에 자체 갤러리를 개관한 것은 광주시립미술관의 '갤러리 LIGHT'가 처음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준비작업을 진행했던 시립미술관 측은 모두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했고 우선 3년간 임대 계약을 맺었다. 이후에는 계약을 연장하거나 규모가 더 큰 공간으로 이전 하는 등 지속사업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광주를 상징하는 '빛'과 시 역점 사업인 관광산업에서 갤러리 명칭을 따온 '갤러리 LIGHT'는 지역 출신 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대관 위주로 운영된다.

대관은 내부 심사를 통해 확정하며 광주 지역 작가에게는 7일 대관의 경우 100만원, 타 지역 작가는 250만원의 대관료를 받는다. 특히 개관 후 1년까지는 지역 작가의 경우 50만원으로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갤러리는 또 전시회가 뜬한 비수기에는 1년에 2회 정도 다양한 주제로 자체 기획전을 열어 지역 작가들을 서울 화단에 알리는 데 적극 나설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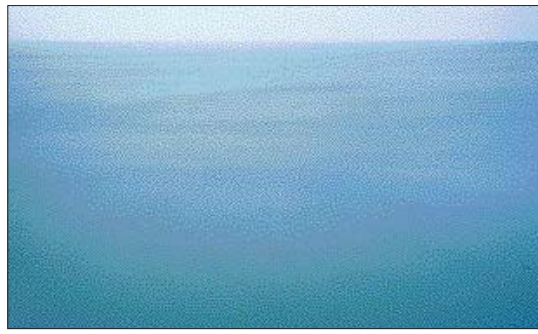
'갤러리 LIGHT' 개관은 서울 입성을 노리는 지역 작가들에게 단비같은 소식이다. 서울에서 개인전을 열 경우 하루 대관료만 100여만원에 이르는 등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또 시립미술관이 직접 직영을 하기 때문에 홍보 등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립미술관은 지난해 지역 작가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내년 8월까지 대관 일정을 마무리했다. 27일 첫 스타트를 끊는 작가는 조각가 정춘표씨다. 이후 한상운, 김익모, 노정숙, 장현우, 임병중씨 등 약 40여명의 작가들이 서울 지역 미술 애호가들을 만날 예정이다.

박지택 광주시립미술관장은 "이번 갤러리 개관은 서울 진출을 위해 노력해온 지역 미술인들의 숙원 사업을 해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능력있는 지역 작가들이 중앙 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조근호 작 '산과 호수'



박일구 작 'Younggwang backsu'



6일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광주시립미술관 갤러리 LIGHT'에서 열린 개관 기념전에서 박광태 광주시장 등(오른쪽에서 첫번째) 참석자들이 전시 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뮤지컬 '맘마미아' 광주 공연

9일~31일까지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스웨덴 출신의 인기 그룹 '아바'의 히트곡으로 만든 뮤지컬 '맘마미아'가 광주를 찾는다. 9~31일까지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맘마미아'는 지난 1999년 런던 초연 후 3천만명의 관객을 동원한 히트작, 한국 뮤지컬계의 명가 신시뮤지컬 컴퍼니가 제작한 '한국판 맘마미아' 역시 지난 2004년 초연 이래 모두 80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인기를 모으고 있다. 특히 뮤지컬계 블루칩으로 통하는 20~30대 미혼 여성 뿐 아니라 40~50대 중장년 까지 관객층으로 흡수하며 화제가 됐다.

작품의 배경은 그리스의 외딴 섬으로 그룹 사운드의 리드싱어였던 도나와 딸 소피가 주인공이다. 결혼을 앞둔 소피는 엄마의 일가집을 출저보다 자신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는 세 명의 남자에게 편지를 띄운다.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도나와 함께 그룹 활동을 했던 타냐와 로지, 세 명의 남자가 한꺼번에 도나의 집에 도착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뮤지컬에 삽입된 곡은 모두 22곡. 뮤지컬

을 위해 따로 개사를 하지 않고 원곡 가사를 그대로 사용했지만 극 전개와 기막히게 떨어진다. '댄싱 퀸', '맘마미아' 등 흥겨운 곡들도 눈길을 끌지만 주인공 도나를 위하여 친구들이 부르는 '치키 치타', '아이 해브 어 드림' 등 서정적인 멜로디들이 톡톡하다.

또 심플하지만 극에 딱 어울리는 무대 장치, 영국에서 직접 공수해온 화려한 의상, 변화무쌍한 조명도 극의 완성도를 높인다.

'맘마미아'에서 놓쳐서는 안될 게 다른 공연장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을 연출하는 '커피타임'이다. 객석 위에 설치된 조명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공연장은 순식간에 콘서트장으로 변한다. 함께 환호성을 지르며 리듬에 몸을 맡기면 훨씬 즐겁게 관람할 수 있다.

주인공 도나 역으로는 '명성황후'의 이태원과 이재영이 더블 캐스팅됐으며 초연 때부터 출연했던 이경미와 전수경, '아이디'의 김성기, 이정미 등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티켓 가격 13만원~5만원. 문의 062-514-2736.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세발까마귀' 정기전 13일까지 무등갤러리

전남대 미술학과 한국화 전공자 모임인 '세발까마귀'는 오는 13일까지 무등갤러리에서 '제11회 정기전시회'를 갖는다.

이번 전시에는 김고운, 문현종, 박설, 박해정, 윤준영, 이동경, 이두환, 임보라, 정인선, 정준성, 장현경, 채종현, 최정아씨 등이 참여해 추상과 구상을 접목시킨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이두환씨는 빛과 어둠의 경계에서 헤매고 있는 느낌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불면증', 윤준영씨는 쪽빛으로 물든 잔치 위에 연필모양의 크레용인 콩테로 거대한 아파트 숲을 연출한 '섬', 정인선씨는 살면서 겪게 되는 이별을 번기 속으로 흘러들어가는 물로 표현한 '안녕? 그리고 안녕~'을 각각 전시한다. 문의 062-236-2520. /오광록기자 kroh@



채종현 작 'ready made'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서대문형무소 기획전'

백범기념사업회, 9일까지 학생교육문화회관

광주·전남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가 건국 60주년을 맞아 오는 9일까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서대문형무소 기획전'을 연다.

이번 기획전은 연대순으로 당시 자료들을 정리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활동상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했으며,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중 서대문 형무소에서 고초를 겪은 인물들의 사진, 기록물 등도 함께 전시했다. 이번 전시는 광주를 시작으로 해남(12~16일 해남문화회관)과 광양(18~23일 광양문화회관)에서도 열린다. 문의 062-233-2477. /오광록기자 kroh@

가슴 몽클한 모정

장정식씨 수필집 '그날의...' 펴내

광주동부교육장을 역임한 수필가 장정식(사진)씨가 자신의 일상과 생각을 솔직하게 담아 네 번째 수필집 '그날의 어머니'(교육사)로 펴냈다.

장 씨는 '원로교사 K의 퇴직담', '모국에서 온 한약장수', '총장로의 옛장수' 등 30편의 수필을 통해 일상의 추억과 삶에 대한 단상을 정성스럽게 펼쳐놓았다.

특히 표제작 '그날의 어머니'에서는 가슴 몽클한 모정을 그렸으며 '섬진강'에서는 바삭바삭 얼음이 부서지는 소리를 통해 다가오는 봄을 묘사하는 등 작품마다 섬세한 글쓰기가 돋보인다.

이명재 문화평론가는 "일상의 삶이나



주변의 사물을 통해 인생관이나 사회현안을 친숙하게 풀어냈다"며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진실하면서도 과장되지 않은 이야기 속에 번득이는 재치와 해학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순천 출신인 장 씨는 광주수필문화회 회장, 한국수필문학가협회 이사, 유네스코 광주·전남 연맹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현대극장사거리 ☎02-1544-0600

1관	다크나이트 (15세)	최고등급
2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15세)	
3관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 (15세)	
4관	월-E (전제)	
5관	미이라3-황제의무덤 (12세)	
6관	고사-피의중간고사 (15세)	
7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15세)	
8관	님은 먼곳에 (15세)/다크나이트 (15세)	
9관	다크나이트 (15세)	

영화 학원 이수하면 감독과 배우가 선물! (1~2008.08.31)
• 이프유 주자장 이음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감독교과제 포함) • 2시간 30분 초저시점 정석요금 무료

—은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엔터 시네마

충정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1관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 (15세)	
2관	월-E (전제)	
3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15세)	
4관	님은 먼곳에 (15세)	
5관	고사-피의중간고사 (15세)	
6관	원티드 (18세)/적벽대전 (15세)	
7관	미이라3 (15세)	

www.entercinema.co.kr
• 넓고 편안한 국내-목의 주차장 300대 • 9관도 심야상영
• 여름방학특선-매일심야상영(8월10일까지) •

황토사랑 영화사랑 • 예매: www.joybox.com / 1588-7941
상무점-여남점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해남점 (무척역안팎)

1관	미이라3-황제의무덤 (12세)	
2관	님은 먼곳에 (15세)/님스아일랜드(전제)	
3관	스페이스침스 (전제)/다크나이트 (15세)	
4관	다크나이트 (15세)	
5관	월-E(대형)/월-E(지판)(전제)	
6관	고사-피의중간고사 (15세)	
7관	미이라3-황제의무덤 (12세)	
8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15세)	
9관	미이라3 (12세)/눈에는 눈 이에는 이 (15세)	
10관	미이라3-황제의무덤 (12세)	

• 호남 최대 주차장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1588-7941
상무점: 10개관, 해남점: 1개관
▶편의 상영중 ▶편의 상영중

색깔있는 영화선학 • www.cinua.co.kr / 1544-0070

씨너스 전대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1관	고사-피의중간고사 (15세)	
2관	님은 먼곳에 (15세)	
3관	미이라3-황제의무덤 (12세)	
4관	월-E (전제)	
5관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 (15세)	
6관	미이라3-황제의 무덤 (12세)	
7관	다크나이트 (15세)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 무료주차 3시간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씨너스네 사무니 (오전9시~오후11시)
ARS 전화예매 1544-0070

고려시영 고래김동 • www.hamcinema.co.kr / 1588-9120

하미 시네마

진대후문 하미포복스 ☎ 267-7777

1관	님은 먼곳에 (15세)	
2관	100피트 (15세)/미이라3 (12세)	
3관	적벽대전 (15세)/강철중 (15세)	
4관	현혹 (전제)/원티드 (18세)	
5관	미이라3-황제의무덤 (12세)	
6관	님스아일랜드(전제)/눈에는 눈 이에는 이 (15세)	
7관	미이라3-황제의무덤 (12세)	
8관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 (15세)	
9관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 (15세)	
10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15세)	

• 500여대 넓은 주차장(3시간 무료) • 385 매일 심야
• 이동통신사 & OK 커쉬백 카드 할인 혜택
• 하미 수영장 288-5757 • 하미 북점 262-0825
• 하미 골프장 251-5060 • 하미 남구점

새로운 기준 • www.primuscinema.com/www.jelcinema.co.kr

제 일 시네마

충정로 37가 ARS 전화예매 227-1960

1관	미이라3 (15세)	
2관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 (15세)	
3관	고사-피의중간고사 (15세)	
4관	다크나이트 (15세)	
5관	님은 먼곳에 (15세)/다크나이트 (15세)	
6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15세)	

•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227-1960